5점 차이 금방 따라잡힌다? 9회 역전 확률 0.41%

9회말 5점차 리드, 과연 위험할까?

김성근 감독, 23일 kt전 9회 투수 2명 교체 논란
9회 5점차 역전, 최근 3시즌 489경기 중 2차례
투수의 실전감각 유지 차원? 상대팀에겐 굴욕감

"5점 차이는 금방 따라잡힌다." 한화 김성근 감독은 23일 수원 kt전에서 6-1로 앞선 9회말 투수 3명을 기용한 것에 대해 이렇게 해명했다. 9회말 단 1이닝, 아웃카운트 3개가 남았지만 5점차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투수 3명을 기용했다는 얘기다.

열성 팬들에게 '야구의 신'으로 불리는 김 감독은 1984년부터 프로야구 사령탑을 맡았다. 중간 중간 몇 차례 공백을 빼도 올해를 포함해 무려 21시즌 동안 감독으로 재임하고 있는 최고의 야구 전문가이기에 김 감독의 말에 반론을 제기하는 이는 많지 않다. 그렇다면 데이터도 김 감독의 주장을 뒷받침할까.

야구는 통계의 스포츠다. 2사 1·3루 역전 찬스에서 그날 타격감이 좋은 9번타자를 빼고 대타를 기용하는 것도 성공 확률을 더 높이기 위한 선택이다. 특히 김 감독은 방대한 데이터를 능수능란하게 실전에 적용하는 달인이다. 최고의 베테랑 감독이 작은 틈도 허용하지 않으려고 9회 굳히기 투수 기용을 즐기면서, 다른 감독들도 최근 큰 점수차로 앞선 9회 잦은 투수 교체를 단행하고 있다.

2012년 9월 12일 SK 이만수 감독은 잠실 LG전에서 3-0으로 앞선 9회말 2차례 투수를 교체했다. 당시 LG 김기태 감독(현 KIA)은 비교적 적은 점수차라고 볼 수 있는 3점차였음에도 "우리 팀을 갖고 장난치는 것 같다"며 불같이 화를 냈다. 9회 승부가 기울어진 가운데 투수 교체는 상대팀에 대한 자극이자, 매너 실종일뿐더러 경기시간 지연 등이라고 해서 금기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9회 5점차 역전은 최근 3시즌 489경기 중 단 2번!

과연 김성근 감독의 우려처럼 9회 5점차 역전은 자주 일어나고, 그만큼 경계해야 하는 수준일까. 야구통계전문업체 ㈜스포츠투아이에 2013시즌 576경기, 타고투저가 극심했던 2014시즌 576경기, 그리고 올 시즌 치른 228경기(5월 26일까지)에서 9회 5점차(이상)로 뒤지다가 최종 역전승을 거둔 사례가 몇 차례나 있었는지 의뢰했다. 결과는 총 1380경기 중 489번 5점차 상황에서 9회를 맞았고, 그중 5점차를 뒤집은 경우는 고작 2차례뿐이었다. 확률로 계산하면 0.41%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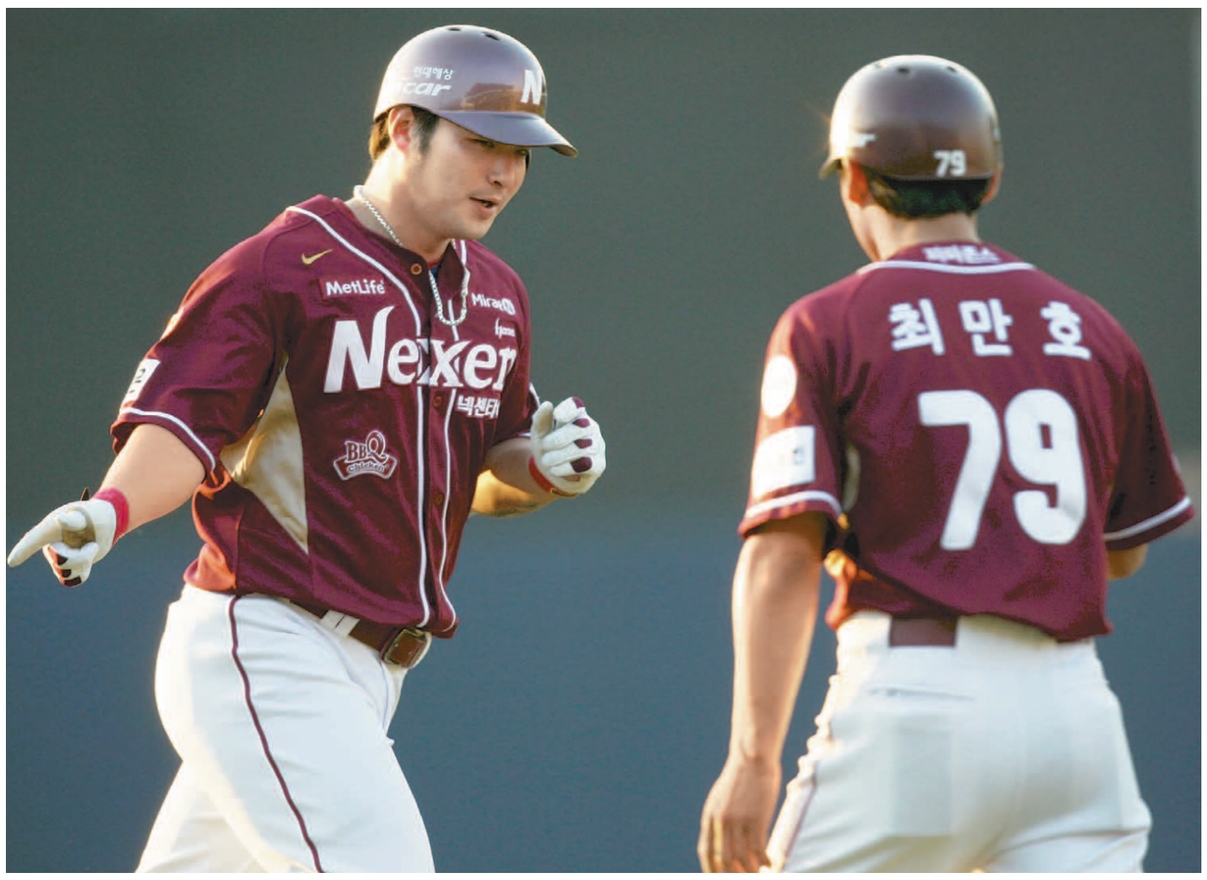
최근 1380경기 중 9회 5점차가 뒤집힌 경기는 2013년 9월 12일 두산-SK전과 2014년 5월 4일 KIA-넥센전이다. 모두 7-2 상황에서 9회가 시작됐고 각각 두산과 KIA가 최종 9-7, 8-7로 역전승을 거뒀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겠지만, 투수를 3명이나 쓰면서, 또 상대팀 덕아웃과 감정대립을 감수하면서까지 걱정해야 할 수준인지는 각자 판단의 몫이다.

●9회 4점차로 확대해도 확률은 0

9회 5점차 역전 사례가 워낙 적어 범위를 4점차(이상)로 확대했지만, 결과는 5점차를 포함해 총 658경기에서 6번이었다. 4점차 역전은 올 시즌 2차례 있었는데, 모두 불펜이 약한 롯데의 패배였다. 658경기 중 6차례면 0.91%의 확률에 불과하다. 이마저 걱정해 마운드를 운영한다면 극도의 완벽주의자라고 볼 수도 있을 듯하다.

일부 감독들은 9회 큰 점수차 투수 교체에 대해 "투수의 실전감각 유지 차원"이라고 해명한다. 4월 21일 LG 양상문 감독은 한화에 10-0으로 앞선 9회초 2사 후 투수를 이동현으로 교체했고, 경기 종료 후 "이동현의 실전 투구가 매우 부족해 9회 무조건 투입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역전패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장기 레이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역시 상대팀과의 갈등 등은 감독 스스로 감내해야 한다. 순식간에 테스트 상대가 된 상대팀은 큰 굴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박병호 시즌 12호포 넥센 박병호(왼쪽)가 27일 대구 삼성전 1회초 무사 2·3루서 장원삼을 상대로 비거리 135m의 초대형 중월3점홈런을 날린 뒤 3루를 돌며 최만호 코치의 축하를 받고 있다.

한화는 '야신'이 와도 안 되는 팀이라고?

김영준의 18.44m



#그림이 아니라 화가다. 무엇을 했느냐보다 누가 했느냐에 뭇 사람들이 가치를 두는 현실을 꼬집는 문장이다. 혹사지수를 대입할 때, 한화 권혁은 26일까지 누적 피로도가 2670이다. 박정진은 2218이다. 송창식은 2085다. 비슷한 출장경기를 기록한 LG 이동현의 누적 피로도는 1275, LG 정찬헌은 1995다. 넥센 조상우는 2025, NC 최금강은 1954다. 평균 피로도로 계산해도 박정진만 79.2이고, 권혁은 98.9, 송창식은 99.3이다. 혹사지수는 메이저리그에서 고안된 개념이다. 보편타당할 순 없지만, 100년 이상 인간의 몸을 관찰해서 생긴 경험의 축적이다.

#한화 김성근 감독(사진)은 어느 인터뷰에서 "권혁이라는 투수의 한계를 잘못 봤다"는 말을 했다. 즉, '더 던져도 된다'는 얘기다. 한 야구해설가는 이렇게 반문한다. "야구가 인간 한계의 시험장인가?" 다른 구단 관계자는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인권의 문제다. 저러다 망가지면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지는가?" 김 감독은 이런 말도 했다. "한화에는 한화의 살림이 있다. 나는 트레이닝 파트에서 안 된다면 안 쓴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언급할 때, 북한이나 중국에서 많이 듣던 논리다. '내정간섭', '한화에는 한화의 사정이 있을 테고, 바깥에 있는 사람은 잘 모른다'는 말은 현 시점에서 꽤 일리가 있다. 다만 이에 관해 여러 팀을 거친 한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한다. "트레이닝 파트는 전문가지만, 모시는 감독 성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같은 증상이라도 감독이 김성근이냐, 김용희냐에 따라 출장 가능이라는 애매한 경계가 달라질 수 있다. 코드를 못 맞추면 감독의 뜻을 받들지 못하는 것이 된다." 실제 김 감독을 따라다니는 트레이닝 코치들이 취임과 함께 합류했다. 이들의 전문성과 철학을 의심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전문가도 결국 조직의 일원인 현실론을 말하는 것이다.

#한화는 지긋지긋한 꼴찌를 벗어나 5할 싸움을 하고 있다. 팬들도 열광한다. 그러나 김 감독은 무리와 성적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한 해설위원은 말한다. "올해 한화가 실패하면 엄청난 피로감이 선수단을 덮친다. 통장에 돈 꽂히는 재미로라도 지옥을 버틸 텐데, 성적이 안 나서 그마저도 없으면 어쩌겠나?" 지난해 비활동기간에 한화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만한 사람은 안다. 김 감독 취임 이후 한화는 프리에이전트(FA) 영입, 전지훈련, 재활 등에 걸쳐 전권을 주고 엄청난 지출까지 감수했다. 김 감독이 실패하면 '한화는 김성근이 와도 안 되는 팀'이라고 넘길 일이 아니다. 팀의 미래가 담보된 상황이다. 그래서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된다.

gatzby@donga.com

kt, 외국인투수 시스코 퇴출 조범현 "투수 대신 타자 영입"



kt가 외국인투수를 내보내고 외국인타자를 선택했다. kt 조범현 감독은 27일 잠실 LG전을 앞두고 "내일 모레 정도면 새 외국인선수가 결정될 것 같다"며 "투수 대신 타자를 영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는 이날 KBO에 투수 앤디 시스코(32·사진)의 웨이버 공시를 요청했다. 시스코는 2m8의 장신 좌완투수로 기대를 모았으나, 올 시즌 17경기에서 승 없이 6패 2홀드라는 초라한 성적을 냈다. 특히 방어율이 6.23으로 좋지 않았다. 조 감독은 "시스코는 기복이 너무 심했다"고 방출 이유를 설명했다.

조 감독이 투수 대신 타자로 돌아선 데는 2가지 이유가 있다. 조 감독은 "공격이 활발해질 것으로 봤다. 또 괜찮은 외국인타자가 들어오면 몸 관리나 트레이닝법 등 여러 부분에서 선수들의 본보기가 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이유는 팀의 젊은 투수들에게 기회를 더 부여하기 위해서다. 조 감독은 "젊은 투수들에게 기회를 더 주려고 한다. 신생팀인 만큼 육성 차원을 고려해 투수 대신 타자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잠실 |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